

도시공원 장소기억의 재현과 발현

- 성동구 응봉공원을 중심으로 -

조형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도시공원은 장소기억이 재현되는 주요한 도시 공간 중 하나이다. 도시공원 조성의 주된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계획 및 조성 과정에서 사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장소기억이 재현되어 공원의 주제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 탑골공원과 효창공원 같은 공원들은 과거의 장소기억을 재현하여 상징성과 기념성을 가지는 공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늘공원, 서울숲과 같이 공원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장소기억을 형성하고자 하는 도시공원도 조성되었다(한소영, 조경진, 2010).

시대에 따라 공원의 장소기억을 재현하거나 새롭게 제시하는 등 양상은 변화하지만, 공원의 장소기억은 계획 및 조성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재현된 장소기억을 갖지 않는 공원들에도 장소기억이 존재한다. 장소기억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이 흘러 축적된 끝에 발현된다. 익선동과 같이 천천히 축적된 장소기억이 발현되며, 서울의 명소로 급부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응봉공원은 계획되지 않은 장소기억이 이용자들의 활동을 통해 발현된 도시공원 중 하나이다. 본 글에서는 응봉공원 및 인근 지역의 형성 과정을 통해 지역의 장소기억을 확인하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새로이 발현된 장소기억이 기존의 장소기억과 관련이 없음을 통해 이용자들의 활동이 새로운 장소기억을 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본론

응봉공원은 성동구 응봉동, 금호동, 옥수동에 걸쳐 있는 근린공원이다. '응봉'이라는 지명은 과거 조선의 왕들이 매사냥을 즐기던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산줄기였지만,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는 응봉산, 매봉산, 금호산, 대현산, 배수지공원의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있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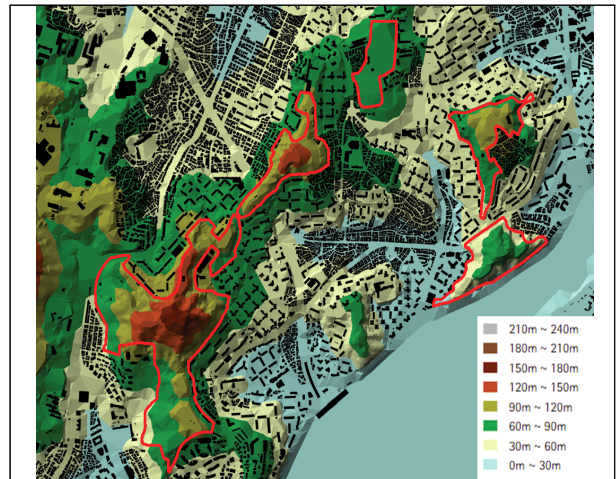


Figure 1. 응봉공원 인근 지역 표고분석도 및 figure

고지대에 위치한 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지로 개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응봉공원 인근 지역의 형성 과정

본 지역은 매봉산자락 위치한 금호동과 응봉산 자락에 위치한 응봉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1856년 제작된 동여도(도성도)에 따르면 금호동의 과거 지명은 수철리 또는 무쇠막이었다. 이는 쇠붙이 연장을 제작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응봉동의 옛 지명은 신촌리로, 이는 과거 살곶이다리 부근에 위치한 민가를 이곳으로 이전하며 새마을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1918년 제작된 일제강점기 하의 지도를 살펴보면 수철리는 금호동이라는 현재의 지명으로 개칭되었으나,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鐵(쇠 철)에서 金(금)을, 水(물 수)에서 湖(호)를 따서 금호동이라는 지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촌리는 응봉산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응봉동으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에 정해진 지명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금호지역은 판자촌, 혹은 달동네로 변모했다. 1970년대에 응봉공원 인근 지역의 항공사진을 통해 경사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공간이 주택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모습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응봉공원과 그 인근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의 장소기억은 매사냥터, 지명의 유래(무쇠술 제작 및 판매) 그리고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다.

2. 응봉공원 장소기억의 재현과 발현

1) 장소기억의 재현

응봉공원은 세 번에 걸친 공원화 과정을 겪었다. 1980년대 초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며 응봉산, 매봉산, 금호산 구역이 공원화 되었다. 1998년에는 금호동 배수지가 지하화되며 지상 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09년에는 독서당로 일대 노후 불량주택이 철거되며 대현산 구역이 공원화되었다.

응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매봉산과 금호산 구역은 남산에서 이어지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으며 응봉산과 대현산 구역은 산책로와 꽃을 주제로 하는 공간을 구성했다. 배수지 공원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중에서도 응봉공원은 응봉산 개나리축제, 대현산 장미원과 같이 꽃을 주제로 한 공간을 새로운 응봉공원의 브랜드로 삼아 장소기억을 형성하고 있다.

응봉공원의 조성 목적과 과거의 장소기억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면에서 나설 수 없었던 과거의 장소기억들은 소극적인 형태로만 공원 내에 재현되었다. 응봉산 구역에는 지명의 유래(Figure 2 참조), 매사냥의 역사 등 장소기억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현산 구역에는 과거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 장소기억의 발현

응봉공원의 계획에서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장소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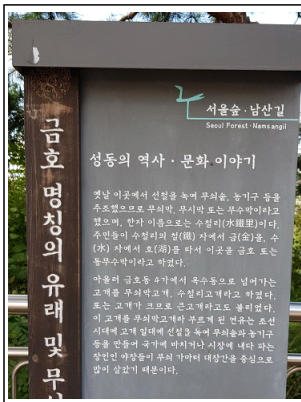


Figure 2. 지명에 관한 장소기억의 재현



Figure 3. '조망지점'으로 발현된 새로운 장소기억의 재현

과도 연관이 없는 새로운 장소기억이 응봉공원에서 발현되었다. 응봉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고가 높아 강남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매봉산의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는 압구정을 끼고 굽어치는 한강의 동쪽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서울의 풍경, 특히 야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야경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이 매봉산과 응봉산의 팔각정을 찾기 시작하며 조망지점이라는 응봉공원의 새로운 장소기억을 축적하여 발현시켰다.

응봉공원을 찾은 이용자들이 발현한 새로운 장소기억은 '매봉산 팔각정 조망지점'이라는 안내판으로 재현되어 응봉공원의 장소기억이 되었다(Figure 3 참조). 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에 의해 공원의 조성 목적 그리고 과거의 장소기억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장소기억이 발현된 것이다.

III. 결론

기존에 도시공원의 장소기억은 과거의 사건이나 공원에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공원의 명칭이나 공원 내의 상징성을 가지는 공간이나 설치물로서 재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두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의 도시공원들은 장소기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응봉공원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의 활동은 공원에 새로운 기억들을 축적시키며, 이는 결국 새로운 장소기억으로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발현된 장소기억은 다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어 도시공원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응봉공원과 반대로, 장소기억으로 발현되기에는 부족한 기억을 축적한 도시공원들도 존재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일상이 담긴 공간이지만 방향성이 없어 발현되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일상 속에서 이용해 온 작고 특색 없어 보이는 도시공원들의 기억들을 들추어 보고, 새로운 장소기억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소영, 조경진(2010). 서울시 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8(2): 37-52.
2. 이은식(2013) 지명이 품은 한국사: 여섯 번째 이야기 1 서울 편, 고양: 타오름.
3. <http://sd.go.kr>